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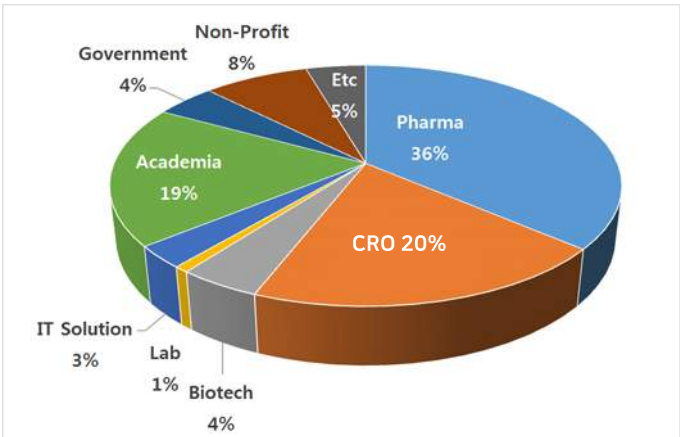
아시아 최대 국제 임상시험 콘퍼런스 2018 KoNECT-MFDS International Conference 성료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KoNECT)와 식품의약품안전처(MFDS)가 공동으로 개최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임상시험 국제행사 “2018 KoNECT-MFDS International Conference(이하 KIC)”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개최된 제4회 KIC는 사흘간 총 1,000여 명이 넘는 청중이 참석해 글로벌 임상시험 분야의 최신 이슈와 동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나타냈다. 특히, 올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와의 공동 주최로 식약처 전문가들이 대거 연자, 좌장, 청중으로 참여하였으며, 최신 Regulatory Update 세션을 비롯한 20여 개의 주제에 대한 뜨거운 토론을 이어갔다.



[그림 1] 2018 KIC 현장사진



[그림 2] 참석자 분포

한국임상시험산업본부 지동현 이사장의 개회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축사(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 대독)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평가원 이선희 원장의 축사로 시작을 알린 이번 행사는 2개의 기조연설과 20개의 세션을 포함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에 나선 보건복지부 김주영 보건산업진흥과장은 바이오산업육성을 위해 도래하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보건의료빅데이터 실행 기반 구축방안에 대해 강조하였고, Johnson & Johnson의 부사장인 Andreas Koester는 환자를 위한, 환자 중심의 임상개발에 대해 강연하였다. 또한, 독일식약처(BfArM, The Federal Institute for Drugs and Medical Devices)의 Janet Koenig 는 독일의 Regulatory 및 임상 시험에 대해 소개하였고, 미국보건복지부(HHS,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Jerry Menikoff 는 변화하는 임상시험 윤리환경 중 개정된 기본 개념들에 대해 강연하였다. 콘퍼런스의 발표자료 등은 정보공개에 동의한 연자들에게 한하여, KIC 웹사이트에서 무료로 확인 가능하다. ([KIC 홈페이지 바로가기](#))

글로벌 신약개발과 임상시험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복잡해지는 가운데, 이번 2018 KIC는 참석자들에게 변화하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더불어 임상개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주제들을 다루는 등 국내외 임상시험 종사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켰다. 또한, 콘퍼런스 기간 중 비즈니스 파트너링 미팅룸을 운영함으로써, 세계 각국에서 참여한 글로벌 전문가들과 함께 국내외 임상시험 현안에 대해 적극 교류하는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그림 3] 2018 KIC 토론



[그림 4] 2018 KIC Welcome Reception

커버스토리

기타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파트너십 프로그램, 트래블어워드 및 임상시험센터 투어 등이 이루어졌으며, 올해에는 태국 치앙마이 의과 대학과 베트남 국립보건의료원의 실무진, 교수진들이 초빙되어 동남아시아 연구자들과의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하였다.

이번 KIC는 국내외 관·산·학계 임상시험 전문가들과 함께 주제들이 엄선되었으며, 혁신적 신약의 개발을 촉진하는데 있어 임상시험에서의 환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며, 보다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생산하기 위한 매우 심도 있고 실용적인 논의의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KIC는 한국 임상시험과 의료 수준을 세계에 보여주는 기회일 뿐 아니라, 한국의 산업이 글로벌 시장과 협력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의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한편, 2019년도 제5회 KIC는 9월 18일부터 9월 20일까지 총 3일간 개최될 예정이며 등록과 전시광고 문의는 KIC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www.konectintconference.org, 문의 kic@konect.or.kr)



[그림 5] 2018 KIC 현장



[그림 6] 개회사 중인 지동현 이사장